

族譜序

文獻之於人大矣孔子歎杞宋不可與言夏殷之禮文獻不足故也相煥竊以國與天下固然則雖私家亦莫不然然則家之所謂文獻者何不如家牒是也故家無譜牒宗族散而宗族散之則至親如路人至於摩肩輓臂而行之而不問過之其爲不幸孰大於此以故我東士大夫重之必一世一修而事鉅目細有費無入故修之難不修亦益難是故吾咸安李之修譜以后經二世而今纔修譜之議歸一雖有晚時之歎是亦幸矣於是按派選任三年成而令相煥書其梗槩于卷頭相煥自視猷然辭之屢屢而不得乃盥水謹書之如右云

臥龍公十三世孫 相煥 謹序

문헌이란 사람마다 여간 중한일이 아닐수 없도다 일찍孔子께서 탄식하시기를 杞宋이 夏殷의 禮를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까닭은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나 相煥도 국가와 천하의 크나큰 집단도 의례 그렇게지만 천하와 국가의 세 포 분자적인 개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개개인의 문헌이란 무엇일까 족보가 곧 그 아니겠는가 때 문에 보책이 없다면 종족이 흩어지고 종족이 흩어지면 친척도 한낱 길손으로 변하여 어찌 를 스치고 팔을 잡을듯이 지나쳐도 모를것이나 이보다 더 큰 불행이 또 있겠는가 그러므로 동방 사대부집이라면 이를 중시하고 한세대(三十年)에 한번쯤 족보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은 부풀고 항목은 세밀한데다 쓰임새는 많고 수입이 적은 탓으로 수보하기가 어

렵다고 하나 그렇다고 수보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니 또한 난감한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 咸安李氏의 수보도 어언 두 세대 전의 일이 되고 말았다 그동안 몇차례의 의론을 거
듭하다가 이제 겨우 중론을 모아 수보토록 결정하였다(一九八〇、八、一〇 총회) 아! 비
록 늦기는 하나 기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각과에서 임원을 선정하고 일을 시작한지 三年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나로 하여금 줄거리를 간추려 머리말을 쓰라 하거늘 나 자
신을 헤아려 부족함을 깨닫고 사양하였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에 삼가 받들어
붓을 들고 위와 같이 쓰노라

甲子년 선달 卅 日

와룡공의 십삼세손 相煥은 삼가 씀

咸安李氏世譜 卷之一

咸安古號

阿尸良阿那伽椰沙羅咸州金羅巴山今咸安(慶南)

始祖

李尚

高麗朝光祿大夫封巴山君

二世

子清

門下侍郎同平章事

三世

子弘

侍中

四世

子滋秀

檢校護軍

五世

子云吉

直講有文而兼有武麗
季防禦虛疎倭寇侵軼
公以中正大夫出爲茂
珍府使赴亂殉節時人
惜之 英廟戊午一七
三八年士林俎豆于固
城郡昆基書院按魚氏
世譜月亭淵綿谷雙甲
與公并享

六世

子隲

見下三

女魚淵

子源

高麗忠烈王二十四年
戊戌一二九八年以摠
郎出補忠清道按廉使
入爲奉翊大夫版圖判
書 王被讒遭吐蕃及
慶守寺之厄公盡忠有
勞及癸亥忠肅十年一
三二三年還都公已卒
王震悼命有司吊賻
贈門下侍中平章事諡
忠義追崇三代世居咸

子芳實

高麗忠烈王二十四年
戊戌一二九八年生于
竝谷內洞兜峰下舊第
忠肅王八年一三三
九年己卯侍從 忠穆
入元有勞及即位補中
郎將遷護軍 賜田百
結 恭愍癸巳一三五
三年轉大護軍甲午入
元討高郵賊還職 叛
賊魯連祥等戊戌紅巾

子芮

幼諱中文初諱仲文
恭讓朝文科弘文館校
理藝文館提學辛未卒
贈門下侍郎雲觀使判
書 恭愍壬寅一三六
二年忠烈公遇害時公
年甫十歲遊於街市人
爭饋以物曰今我輩獲
安寢食皆元帥之力至
有泣下者事在東國通
鑑及麗史公自內洞移

子頴

號靜齋 太祖甲戌一
三九四年文科司諫院
左正言知製教 世宗
庚申一四四〇年行忠
清道按廉使公有學識
才行嘗有遺稿失於兵
火只有二首詩載東選
文行于世
配淑夫人清州韓氏父
奉訓大夫判典客寺事
光漢

子楨

見下
一〇